



# 골담초



최 명 섭  
임업연구원

과명 : 콩과  
 학명 : *Caragana sinica*  
 (Buchoz)Rehder  
 한명 : 骨擔草, 金雀木,  
 錦鷄兒  
 일명 : むれすずめ

골담초는 생약명 혹은 한자 명으로 금작목(金雀木), 금작화(金雀花)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꽃의 색깔이 노랑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며 꽃의 형태가 아름답고 기이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교목류는 장수하는 노거수가 많으나 관목류는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관목류로 불가사의(不可思議)가 있으니 이 이야기는 12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상북도 영주군 부석면 북

기동에 있는 신라때 지은 고찰 「浮石寺」의 골담초에 얽힌 이야기다. 부석사는 돌이 공중에 떠있는 것으로 너무도 유명한 절이지만 이 절에는 부석외에도 너무도 신기한 것이 많다.

이골담초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義湘大師)가 도를 깨치고 천축국(天竺國)으로 떠나려 할 때 자기의 표적을 남기기 위하여 항상 대사가 거쳐하던 방문앞 처마밑에다 대사가 짊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으면서 「내가 간뒤에 방문앞 처마밑에다 대사가 짊고다니던 지팡이를 꽂으면서 「내가 간뒤에 이 지팡이에서 반드시 가지와 잎이 날 것이다. 이나무가 말라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은 것으로

알라」는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났는데 의상대사가 떠난 후 과연 그 지팡이는 싹이트고 가지가 나와 자랐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나무는 처마밑에 꽂은 지팡이인고로 비나 이슬을 맞을수록 없는데도 잘자랐다. 그 나무는 한길 남짓자란 후로는 더도 덜도 자라지않고 그대로 오랜세월을 한결같이 살아있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조선 광해조때 경남감사로 있던 정조(鄭造)란 사람이 부석사에와서 이 불가사의의 나무를 탐내어 「他人이 짊던것이니 나도 지팡이를 만들어갖고 싶다」고 말하면서 톱으로 자르게 하여 가지고 가고말았는데 이 이상한 나무는 다시 새순이 전과같이 울



라와 그 모양, 그키대로 자라나는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나무를 베어갈던 정조는 인조계해년(仁祖癸亥年)에 역적으로 몰려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그후로는 이나무를 탐내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골담초는 지금도 조사당(祖師堂) 처마밑에 의연히 살아있어 비록 햇빛과 달빛은 비치지만 비와 이슬을 맞지않으면서도 의상대사가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사찰의 스님들은 이나무를 선비화수(仙飛花樹)라 부르며 신성시한다.

옛날 퇴계(退溪)선생은 이나무를 두고 「지팡이가 신성스러운 나무로 화했다는데 지팡이 꼭지에 스스로 조계(曹溪)의 물이 있는가 천지간의 비와 이슬의 은혜를 빌지않고도 살아 있구나」하고 탄복하여 시를 지은적도 있다.

### 1.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 중부와 북부지방의 산지에 자생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 2m정도 자라며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큰포기를 형성한다. 양수이나 반음지에도 견디고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건조에 견디는 힘도 강하며 생장이 빠르고 내한성도 강하다. 내조성이 강하여 해변에서도 잘생육하며 공해가 심한 도심지에서도 잘생

육한다.

### 2. 형태적 특성

앞은 어긋나고 우수 1회우상복엽으로 소엽은 4개로서 길이 1~3cm이고 타원형이며 두껍고 표면에 윤채가 있다. 꽃은 길이 2.5~3.0cm로서 5월에 피고 황적색으로 1개씩 아래로 향해 핀다. 열매는 길이 3.0~3.5cm로서 원주형이고 털이 없으며 8~9월에 익으나 잘 달리지 않는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환경조건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며 5월에 피는 황적색의 꽃이 아름답고 맹아력이 강하여 생울타리로 유망하다. 건조하고 척박한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사면의 절개지에 열식하면 손쉽게 피복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에도 강하여 도심지 가정정원에 식재할만하다.

### 4. 번식법

종자결실이 잘 안되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에 뿌리를 붙여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그해에 자란 가지를 6월에 삼목상을 마련하여 삼목하면 손쉽게 번식시킬 수 있다.

### 5. 그밖의 용도

그 옛날에는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보다는 오히려 민간약으로서 집주변 햇빛이 잘드는 곳이나 우물가, 장독대옆에 심었다가 신경통과 골절로 쓰시고 아플때와 타박상이나 뱀데 등 주로 뼈와 관계있는 병에 뿌리를 다려서 먹었으며 효험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또 고기에 제한데도 다려서 먹었다.

홍년이 드는때는 꽃을 따서 데쳐 나물로 먹기도 했다한다. 민속약으로 쓰여왔던 골담초의 슬기는 오늘날 신경통의 약으로 인정되어 새롭게 증용됨은 조상의 슬기를 자랑할 우리의 긍지라고 할 수 있다. **조경수**

